

# 청소년의 권리실제와 자아개념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Right Practice and Self-Concept on Social Skills of Adolescents

지은주·양성은\*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전공

Ji, Eunju · Yang, Sungeun\*

Consumer & Child Studies Major, Inha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identify the difference in social skills among adolescent students, by grade gender, rights practice, and self-awareness. It will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rights of adolescents and provide basic data of guaranteed rights for adolescents and social skills. Using questionnaires, a 569 adolescents, in four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and the Capital Area, were analyzed.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emales showed higher empathy skills than males did in social skills. In the case of male adolescents, self-control skills among social skills, was higher than those of females. Second, practice for rights and self-concept had positive influences on social skills. The higher the practice for rights, the higher cooperation, assertiveness, empathy, and self-control the adolescents had. The more positive self-concept of physical appearance, gymnastic ability, friends, and honesty, trust and value, indicated a higher assertiveness. The result implied that the adolescents' practice for their rights, self-concept, and social skills were highly correlated with one another, and adequate practice for their rights and positive self-concept had influences on their social skills. Based on the results, in order for adolescents with a low level of social skills to have a satisfactory social life, they should be encouraged to practice their own rights in the right direction and to acquire positive self-concept in the future.

**Keywords:** social skills, right practice, self-concept

## I. 서 론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인간은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과 지능, 그리고 재능과 양심을 발전시키고 이용할 수 있으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권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

였으며, 이후 아동도 성인과 같은 권리보유자임을 인식하고 알려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권리는 그들이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의미하며, 일반 성인의 권리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성인의 것과는 차이가 있다(김윤정, 1998). 그것은 자율성을 가진 존재이면서도 성인에게 보호 받아야 하는 의존적인 아동·청소년의 특수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란 아동들의 욕구와 관심을 인정하고 충족해 주는 사회적 표명이라 할 수 있다(장인협, 오정수, 1993). 2010

\* Corresponding author: Yang, Sungeun  
Tel: 032-860-8117  
Email: syang@inha.ac.kr

년 10월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한 ‘경기도학생 인권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는 반대로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실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루어이원, 2004; 이재연, 강성희, 1997). 또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권리보장에 관한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에 비해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하다.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김난영, 2002; 배문숙, 2003)이나 아동·청소년의 권리 인식수준 파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강정미, 2005; 김영남, 2009; 이지수, 2006), 아동·청소년의 권리 중 참여권에만 집중되어 있는(김젤나, 2005; 남동현, 2010; 배문숙, 2003) 경향이 있다. 또한 주로 부모관련 변인(남동현, 2010; 이해정, 2006), 권리옹호(김영남, 2009; 유지민, 2003) 등과 관계를 밝힌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나 영향력을 밝혀낸 연구가 부족하다.

한편 청소년기는 자신을 발견하고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자기에 대한 느낌과 생각인 자아개념이 확고해지는 시기이다(조장은, 2001). 자아개념은 크게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 자신의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그 반면에,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자기태도로 인해 열등감을 가지고 비관적이며 소외감을 느끼며,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Rogenber, 1985). 이처럼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획득은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청소년들에게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는 그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이수연, 문용우, 2002)

자아개념(self-concept)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지각으로 ‘나’라는 것과 관련된 모든 자기지각을 의미한다(고진영, 2004). 한 개인이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의 신체, 행동, 능력 등에 관해 지니고 있는 가치에 대한 태도, 신념, 견해(송인섭, 1989)로서, 상황에 대한 지각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 경험의 총체이다(Shavelson *et al.*, 1976).

긍정적인 자아개념이란 개인이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며, 특히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심 있는 대우와 자신의 성공적인 경험 등에 의해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다. 이처럼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인간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발달에 필수적이며, 생존을 위한 결정적 가치인 동시에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시키며 건전한 성격발달의 기반이 되고 성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긍정적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중요하며 이 사실이 다수의 선행연구들(DuBois & Hirsch, 2000; Haney & Duriak, 1998)에 의해 밝혀졌다.

자아개념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자아개념이 청소년의 학교적응, 교우관계, 대인관계능력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최이숙, 2003).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개념과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사회 속에서 유능한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며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고인숙, 2004),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사회적 능력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김효진, 1999).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 및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자아개념은 구체적인 인간관계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임승환(1989)은 자아개념은 아동이 자신의 사회적 영역을 넓혀가면서 가족과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어 간다고 하였다. 또 정원식(1979)은 왜곡된 자아개념과 자기이해의 부족이 부적응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살펴볼 때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인간관계, 사회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협동, 자기주장, 공감, 자기통제를 포함하는 사회적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기술이란 전형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환경에서 타인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구체적인 목표지향적 행동을 의미한다(강현경, 2009). 즉 사회적 기술은 사회적 능력을 쌓는 기반이며(Elliott *et al.*, 1993),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 참여하는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능력을 유지, 증진시키고 새로이 창조할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현적, 내재적 행동인 것이다(Gumpel, 2007). 특히 자율적 욕구가 강해지는 청소년기는 인간관계가 급속하게 확대되어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유롭고 상호 대등한 수평적 인간관계를 맺으며 그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

하러 한다(구본용 외, 1999).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은 목적이 있는 상호작용이라기보다 그 자체에서 만족을 느끼게 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발달적으로 다양한 인간관계를 습득해나가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특성이 각자의 인격형성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대인관계를 위한 협동, 자기주장, 공감, 자기 통제 등의 기술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Gresham과 Elliott(1990)는 사회적 기술을 사회적 유능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보았으며, 사회적 유능성이란 어떤 사회적 과제나 긍정적 발달을 성취하기위해 인지, 정서, 행동을 통합하는 능력을 포함하는데, 문화나 지역, 상황에 따라서 그 실질적 의미가 달라지는 기술, 태도, 능력, 감정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유능하다는 것은 다양한 환경과 장면에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환경과 장면에 적합한 기술을 사회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1990년에 사회적 기술 평정척도(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를 고안했고 여기서 사회적 기술을 협동성, 주장성, 공감, 자기통제로 규명하였다. 협동성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타협하며, 자신이 할 일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짓는 능력을 뜻한다. 주장성은 자신이 먼저 표현하며 관계를 시작하거나 주도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고, 공감은 자신의 갈등 상황 시 친구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거나, 타인의 갈등상황을 공감하고 도와주거나, 친구의 강점을 칭찬하고 먼저 인사하는 등의 또래 간의 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자기통제는 친구들이 놀림이나 이성과의 관계, 어른과의 갈등과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Gresham & Elliott, 1990).

이진화(1999)는 공감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과제 수행이나 대인관계에서 더 크게 성공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수용 받고, 공감하는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것은 건강하게 성장발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박혜원, 2002). 마지막으로 또래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의견과 또래로부터의 모욕적인 행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또래관계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영주, 1999). 장혜정(2008)의 연구에서는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진다

는 결과를 제시하여 청소년의 비행문제에 대해 자기통제를 높이는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사회적 기술은 청소년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강소연(2010)의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기술의 하위요인 중 협동성, 주장성, 자기통제는 남자청소년이 높게 나타나고, 공감은 여자청소년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임지현(2009)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5, 6학년を対象으로 사회적 기술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은 협동성과 주장성이, 여학생은 공감 기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선경(2009)의 연구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기술의 개념 중 주장성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주장 및 불만제기 능력과 공감 기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정서적지지 능력이 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낸 바 있다. 한편, 청소년의 학년에 따라서는 사회적 기술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임지현, 2009).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학년의 차이가 미미하고 학년에 따른 사회적 기술의 차이를 밝힌 연구가 부족하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성차에서 서로 다른 연구의 결과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며 또한 학년 간 차를 밝힌 연구가 부족하여 청소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기술에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이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는 권리인식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을 뿐,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권리를 잘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때문에 청소년의 권리 실제와 사회적 기술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고찰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적 흐름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참여권을 행사하는 청소년들의 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미루어 볼 때 청소년의 권리 실제는 협동성, 주장성, 공감, 자기통제로 설명되는 사회적 기술의 하위 변인에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구성원인 한 개인과 사회와의 소통이 중요시 되는 청소년을 하나의 완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이들의 권리보장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권리와 자아개념,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을 조망하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권리 및 사회적 기술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기에 필수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긍정적

인 자아개념과 원만한 사회적 기술을 도모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성과 학년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실제, 청소년의 자아개념, 사회적 기술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권리실제, 자아개념, 성, 학년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하였다. 편의표집을 이용하여 서울 지역의 1개 중학교, 경기 일산지역의 1개 중학교, 서울 지역의 1개 고등학교, 경기 김포지역의 1개 고등학교에 총 590부를 배부하였다. 이 중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자 21부를 제외하여 569명을 최종 자료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성, 학년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청소년의 성은 남학생이 293명(51.5%), 여학생이 276명(48.5%), 학년은 중학교 2학년이 279명(49%), 고등학교 2학년이 290명(51%)으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권리실제는 '권리 보유 정도 인식'

<표 1> 연구 대상의 성, 학년의 분포

(N=569)

학 년	성 별		
	남 n (%)	여 n (%)	전체 n (%)
중학교 2학년	151(26.5)	128(22.5)	279(49.0)
고등학교 2학년	142(25.0)	148(26.0)	290(51.0)
전체	293(51.5%)	276(48.5%)	569(100%)

<표 2> 권리실제 척도의 문항 및 신뢰도

문항수	Cronbach' $\alpha$
40	.939

설문지, 자아개념은 자아개념척도, 사회적 기술은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권리실제 척도

청소년의 권리실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Hart와 Zeidner(1993)가 제작한 'Children's Rights Perspectives of Youth and Educators: Early findings of a Cross National Project'를 통해 개발한 이재연과 강성희(1997)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여기에는 권리의 중요성 인식과 현재 생활에서 이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권리실제를 조사하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본바 권리의 중요성 인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본 연구에서 알아보하고자 하는 권리실제에 '권리의 보유 정도 인식'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어 '권리의 보유 정도 인식'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질문지를 통해 산출된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 2) 자아개념 척도

청소년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고진영(2004)이 개발한 자아개념 척도 중 중·고등학생용 자아개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예비조사를 통하여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점(아주 다르다), 2점(다르다), 3점(같다),

4점(아주 같다)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지각된 것을 의미한다. 신체외모 자아, 운동능력 자아, 친구관계 자아, 부모관계 자아, 정서적 안정 자아, 정직신뢰가치 자아, 수학적 자아, 언어적 자아, 일반적 자아 등 9개의 하위요인, 6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신뢰도가 낮은 정직신뢰가치 자아의 22번 문항을 제외하여 총 사용문항은 63문항이다. 본 척도를 통해 산출된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3) 사회적 기술 척도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Gresham과 Elliott(1990)가 제작한 SSRS를 문성원(1996)이 수정, 보완한 학생용 사회적 기술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협동성, 주장성, 공감, 자기통제 등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거의 그렇지 않다), 3점(그렇다), 4점(항상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을 총 39문항이며, 기존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예비조사를 통하여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청소년의 검사 문항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에 위치한 중학교 2학년 학생 18명,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2010년 6월 25일에 시행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검사 문항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본 척도의 문항은 그대로 사용하되 척도의 수준은 5점에서 4점으로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2010년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4개의 중·고등학교에서 실시 및 수집되었다.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 전화로 각 학교 선생님들께 자료조사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본 연구자가 사전에 선생님들에게 실시 방법을 간략하게 구두 전달 후, 선생님의 지도하에 학생이 교실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제출된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선생님으로부터 일괄적으로 회수하였다. 조사시간은 평균 25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지는 4개 중·고등학교에 총 600부를 배부하였고 590부를 회수하였으나, 무응답이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21부를 제외하고 총 569부가 실제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3〉 자아개념 척도의 문항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 $\alpha$
신체외모	6	.854
운동능력	8	.854
친구관계	6	.783
부모관계	7	.825
정서적안정	7	.799
정직신뢰가치	6	.605
수학	10	.907
언어	7	.847
일반교과	7	.890

〈표 4〉 사회적 기술 척도의 문항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 $\alpha$
협동성	9	.624
주장성	10	.727
공감	10	.735
자기통제	10	.728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각 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 각 변인의 하위 요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권리실제와 자아개념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성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성과 학년에 따른 사회적 기술을 4가지 하위요인 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협동성은 성( $t=-.39$ )과 학년( $t=.44$ )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장성 또한 성( $t=.49$ )과 학년( $t=.19$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공감은 성( $t=-4.96,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학년( $t=-1.04$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통제는 성( $t=2.14, p<.05$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학년( $t=1.07$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공감의 기술은 여자 청소년이 높고, 자기통제는 남자 청소년이 더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청소년의 권리실제, 자아개념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권리실제, 자아개념, 성, 학년

이 사회적 기술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성과 학년은 더미변수로 변환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항 간의 상관과 다중공선성 존재여부를 검토한 결과, Dubin-Watson 계수가 1.984~2.128으로 2에 가까워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선성 여부를 알기 위해서 공차한계(Tolerance)와 VIF 계수를 산출한 결과, 공차한계가 작거나( $<0.1$ ) VIF계수가 크면( $>10$ )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모형에서 공차한계는 0.1 이상이었으며, VIF 계수가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측정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청소년의 권리실제, 자아개념, 성, 학년이 협동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권리실제, 자아개념, 성, 학년이 협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협동성을 설명해주는 변인은, 정직신뢰가치 자아( $\beta=.378, p<.001$ )가 가장 영향력이 컸고, 다음으로는 일반교과 자아( $\beta=.133, p<.01$ ), 권리실제( $\beta=.118, p<.01$ ), 친구관계 자아( $\beta=.091, p<.05$ ), 운동능력 자아( $\beta=.083, p<.05$ ), 언어적 자아( $\beta=.082, p<.05$ )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F통계량은 27.727( $p<.001$ )로서 매우 유의하고,  $R^2$ 에 의한 설명력은 37.4%로 나타났다. 유의한 회귀계수들은 모두 정적 영향을 보였다.

<표 5> 성과 학년에 따른 사회적 기술의 문항평균 및 표준편차

(N=569)

측정변인	성		t	학년		t
	남자 (N=553) M(SD)	여자 (N=587) M(SD)		중 2 (N=559) M(SD)	고 2 (N=581) M(SD)	
협동성	2.78(.36)	2.79(.35)	-.39	2.79(.37)	2.77(.33)	.44
사회적 주장성	2.76(.39)	2.74(.38)	.49	2.75(.42)	2.75(.36)	.19
기술 공감	2.92(.37)	3.06(.34)	-4.96***	2.97(.38)	3.00(.34)	-1.04
자기통제	2.63(.39)	2.56(.39)	2.14*	2.61(.41)	2.57(.38)	1.07

\*  $p<.05$  \*\*\*  $p<.001$

2) 청소년의 권리실제, 자아개념, 성, 학년이 주장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권리실제, 자아개념, 성, 학년이 주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청소년의 주장성을 설명해주는 변인은, 친구관계 자아( $\beta=.343, p<.001$ )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으며, 다음으로는 권리실제( $\beta=.194, p<.001$ ), 운동능력 자아( $\beta=.185, p<.001$ ), 정직신뢰가치 자아( $\beta=.184, p<.001$ ), 신체외모 자아( $\beta=.122, p<.01$ ), 언어적 자아( $\beta=.082, p<.05$ )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F통계량은 39.264( $p<.001$ )로 매우 유의하고,  $R^2$ 에 의한 설명력은 45.9%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의 권리실제, 자아개념, 성, 학년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권리실제, 자아개념, 성, 학년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공감을 설명해주는 변인은 친구관계 자아( $\beta=.264, p<.001$ )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권리실제( $\beta=.247,$

<표 6> 청소년의 권리실제, 자아개념, 성, 학년이 협동성에 미치는 영향

(N=569)

측정변인	B	$\beta$	$R^2$	F
(상수)	.771			
권리실제	.003	.118**		
신체외모	-.033	-.056		
운동능력	.048	.083*		
친구관계	.065	.091*		
부모관계	.035	.053		
정서적 안정	.035	.056	.374	27.727***
정직신뢰가치	.305	.378***		
수학	.026	.049		
언어	.047	.082*		
일반교과	.072	.133**		
성	.008	.012		
학년	-.004	-.006		

\*  $p<.05$  \*\*  $p<.01$  \*\*\*  $p<.001$

<표 7> 청소년의 권리실제, 자아개념, 성, 학년이 주장성에 미치는 영향

(N=569)

측정변인	B	$\beta$	$R^2$	F
(상수)	.171			
권리실제	.005	.194***		
신체외모	.079	.122**		
운동능력	.118	.185***		
친구관계	.271	.343***		
부모관계	-.043	-.060		
정서적 안정	.001	.001	.459	39.264***
정직신뢰가치	.164	.184***		
수학	.032	.055		
언어	.052	.082*		
일반교과	.004	.006		
성	.005	.007		
학년	-.017	-.022		

\*  $p<.05$  \*\*  $p<.01$  \*\*\*  $p<.001$

$p<.001$ ), 정직신뢰가치 자아( $\beta=.237, p<.001$ ), 성( $\beta=.161, p<.001$ ), 정서적 안정 자아( $\beta=-.111, p<.01$ ), 운동능력 자아( $\beta=.108, p<.01$ )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F통계량은 29.522( $p<.001$ )로서 매우 유의하고  $R^2$ 에 의한 영향력은 38.9%로 나타났다.

4) 청소년의 권리실제, 자아개념, 성, 학년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권리실제, 자아개념, 성, 학년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표 8>과 같다. 청소년의 자기통제를 설명해주는 변인은 정직신뢰가치 자아( $\beta=.333, p<.001$ )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정서적 안정 자아( $\beta=.173, p<.001$ ), 권리실제( $\beta=.165, p<.001$ ), 일반교과 자아( $\beta=.144, p<.01$ ), 친구관계 자아( $\beta=-.138, p<.01$ ), 부모관계 자아( $\beta=.127, p<.01$ ), 성( $\beta=-.089, p<.05$ ), 수학적 자아( $\beta=.079, p<.05$ )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F통계량은 24.773( $p<.001$ )로서 매우

<표 8> 청소년의 권리실제, 자아개념, 성, 학년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

(N=569)

측정변인	B	$\beta$	$R^2$	F
(상수)	.845			
권리실제	.006	.247***		
신체외모	.018	.030		
운동능력	.064	.108**		
친구관계	.194	.264***		
부모관계	-.013	-.019		
정서적 안정	-.071	-.111**	.389	29.522***
정직신뢰가치	.197	.237***		
수학	.002	.003		
언어	.047	.079		
일반교과	.003	.006		
성	.116	.161***		
학년	.022	.030		

\*  $p<.05$  \*\*  $p<.01$  \*\*\*  $p<.001$

<표 9> 청소년의 권리실제, 자아개념, 성, 학년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N=569)

측정변인	B	$\beta$	$R^2$	F
(상수)	.843			
권리실제	.004	.163***		
신체외모	-.023	-.035		
운동능력	-.009	-.013		
친구관계	-.111	-.139**		
부모관계	.093	.127**		
정서적 안정	.120	.172***	.329	22.701***
정직신뢰가치	.301	.334***		
수학	.045	.076		
언어	-.031	-.048		
일반교과	.087	.144**		
성	-.070	-.088*		
학년	-.014	-.018		

\*  $p<.05$  \*\*  $p<.01$  \*\*\*  $p<.001$



유의하고 R<sup>2</sup>에 의한 영향력은 32.9%로 나타났다.

#### IV. 결론 및 제언

이 장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며 그에 대한 논의를 함께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의 의의와 함께 결론을 일반화하는데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제한점을 함께 제시한다.

##### 1. 논의 및 결론

첫째, 성과 학년에 따라 사회적 기술을 살펴본 결과 각 하위변인별로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성에 따른 차이는 공감, 자기통제에서 나타났으나,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공감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았고, 자기통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았는데 이는 강소연(2010)의 연구에서 성에 따라 협동성, 주장성, 자기통제는 남자 청소년이 높고, 공감은 여자 청소년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임지현(2009)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회적 기술을 알아본 결과 남자는 협동성과 주장성이 높고, 여자는 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타인에 대한 이해나 공감하는 사회적 기술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년에 따른 사회적 기술의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임지현, 2009)와 일치했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 기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변하는 것은 아니며, 성적인 특성에 따라 남녀 청소년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발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권리실제와 자아개념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권리실제는 사회적 기술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이 권리실제가 높을수록 타인과의 협동과 자신의 주장을 잘 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기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자아개념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기술의 4개의 하위요인에 모두 영향을 미친 것은 부모관계 자아와 정직신뢰가치 자아이다. 부모관계 자아는 사회적 기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김미영(2006)의 연구에서 부모가 애정

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태도를 가질 때 자녀들이 높은 사회성을 갖는다는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에는 부모변인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아개념의 하위요인 중 정직신뢰가치 자아 또한 사회적 기술의 모든 하위변인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정직과 신뢰의 가치를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은 협동성, 주장성, 공감, 자기통제의 기술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권리실제가 높은 청소년은 사회적 기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때 올바른 사회적 기술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교사, 부모, 청소년을 위한 권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생활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또한 자아개념의 하위요인 중 부모관계 자아와 정직신뢰가치 자아가 사회적 기술의 모든 하위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부모관계를 이루고 정직과 신뢰의 가치를 높게 지각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을 격려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와 소통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2. 제언 및 의의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서울 및 경기지역에 있는 인문계 중·고등학생들로 국한되어 있어서 전체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안정성을 위해 인문계 중·고등학교 이외의 실업계 중·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폭넓은 표집을 하거나 서울 및 경기지역 이외에 다양한 지역특성을 가진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권리실제와 자아개념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청소년의 권리실제와 자아개념이 사회적 기술에 비교적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본 연구의 결과로 그대로 기술하였으나 이는 엄격한 측면에서 본 연구를 바라보았을 때, 선행연구가 미흡하고, 이에 대한 이론 역시 명확하지 않으므로 영향력의 방향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더욱 심층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수이고 연구는 주로 권리의 인식을 연구하는 데에서 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청소년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에 대해 조명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권리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유아, 초등학생, 교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동시에 연구대상에 포함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와 소통하고 타인과 원만한 관계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는 사회적 흐름속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변인과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더욱 다각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을 살펴본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다양한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부족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실제와 사회적 기술에 대해 그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기의 권리실제의 중요성을 시사했음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과 학년에 따른 사회적 기술의 차이와 청소년의 권리실제와 자아개념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청소년기의 권리실제와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은 사회적 기술 획득과 관계가 있으며 청소년이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협동성, 주장성, 공감, 자기통제의 사회적 기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높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자신의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높은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권리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바이다. 또한 청소년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및 학교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해 청소년의 권리와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의 중요성을 시사해 줌으로써 청소년 양육과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주제어:** 사회적 기술, 권리 실제, 자아개념

## 참 고 문 헌

- 강소연. (2010).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 및 사회기술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정미. (2005). 초등학교 아동의 권리의식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현경. (2009). 유아 사회적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인숙. (2004). 아동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진영. (2004). 발달단계별 자아개념 측정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구본용, 김택호, 김인규. (1999). **청소년 또래관계**. 제 21 회 청구년 문제 토론 광장 자료집. 서울: 한국 청소년 상담원.
- 김난영. (2002). 학생자치활동과 학생권리 실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 (200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남. (2009). 초등학교 아동의 권리인식과 권리옹호와의 관계.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정. (1998).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권리에 관한 기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젤나. (2005).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권 행사와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진. (1999). 청소년의 출생순위와 성에 따른 자아개념, 학교생활 적응 능력 및 사회적 능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동현. (2010). 참여권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루어이원. (2004). 대만과 한국의 교사 및 아동의 아동권리인식에 관한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성원. (1996). 한국관 청소년용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 (K-SSRS) : 중고생용의 표준화, **한국심리학회지**, 15(2).
- 박은숙, 조오숙, 김영희. (2009). 부모의 훈육방식과 청소년의 성, 연령, 자아개념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 박혜원. (2002). 공감훈련이 여중생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문숙. (2003). 청소년의 참여적 권리 확대 방안.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인섭. (1989). 자아개념 구조에 대한 발달적 경향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27(1).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오름.
- 유지민. (2003). 아동의 권리 인식 및 공감과 권리옹호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경. (2009).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통제가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 문용우.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권리인식과의 관계 연구. **청소년학연구**, 9(1).
- 이재연, 강성희. (1997). 권리에 대한 아동의 인식. **아동과 권리**, 1(1), 65-83.
- 이지수. (2006).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실태 및 인권의식. **아동과 권리**, 10(3).
- 이진화. (1999).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애착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정. (2006).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승환. (1989). 대면집단에서의 언어반응 변화추세와 자아개념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지현. (2009). 아동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인협, 오정수. (1993).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혜정. (2008).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성역할 정체감, 자기 통제 및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원식. (1979). 학습부진의 원인규명을 위한 사례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조장은. (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이 청소년기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이숙. (2003).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자아개념,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관계.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영주. (1999). 중고등학교 집단따돌림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DuBois, D. L., & Hirsch, B. J. (2000). Self-esteem in early adolescence: from stock character to marquee attraction.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1), 5-11.
- Elliott, S. N., Busse, R. T., & Gresham, F. M. (1993). Behavior rating scales: issues or use and development. *School psychology review*, 22(2), 313.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Co., 261-263.
- Gresham, F. M., & Elliott, S. N. (1984). Assessment of children's social skills: A review of methods and issue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3, 292-301.
- Gresham, F. M., & Elliot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Gumpel, T. (2007). Are social competence difficulties cause by performance or acquisition deficits? the importance or self-regulatory mechanisms. *Psychology in the School*, 44(4), 351-372.
- Haney, P., & Duriak, J. A. (1998). Changing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4), 423-433.
- Hart, S. N., & Zeidner, M. (1993). Children's rights perspectives of youth and educators: Early findings of a cross national project.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 165-188.
- Marsh, H. W. (1991). Self-concept of young children 5 to 8 years of age: measurement and multidimensional structur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3), 377-392.
- Rogenber, M. (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L. Leaky (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New York: Academic press, 205-242.
- Shavelson, R. J., Hubner, J. J., & Stanton, G. C. (1976). Self-concept: validation i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 407-441.

Wigfield, A., Eccles, J. S., Maclver, D., Reuman, D. A., & Midgley, C. (1991). Transi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Changes in children's domain-specific self-perceptions and general self-esteem across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27, 552-565.

접 수 일 : 2011. 08. 26.  
수정완료일 : 2011. 10. 19.  
게재확정일 : 2011. 10. 22.